

Field Voice >>>



작년 국내 기업들 실적을 보니...

국내 전력산업 관련 기업들이 지난해 실적을 발표한 결과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호황세를 이어갔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다지 큰 재미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성,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LS전선 등 중전기 대기업들의 경우 해외의 수주세 증가로 매출, 영업의 등 모든 면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출이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수출 부진,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마진 축소, 한전의 공사 물량 감소 등에 따른 여파가 그대로 전해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기업들의 경우 원가절감 등을 위한 노력 및 신기술·제품에 대한 개발 노력이 가시화되면서 풍력, 태양광 등 새로운 분야로 발을 넓힌 반면, 중소기업들은 연구개발 성과가 아무래도 부족하기에 그 격차는 더 심해졌다는 지적이어서 이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친환경 개폐장치 시대 열려

LS산전이 온실가스인 SF6 가스 대신 친환경 에폭시(Epoxy) 절연물을 적용한 친환경 25.8kV 고체절연 개폐장치(SIS, Solid Insulated Switchgear)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한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함에 따라 시장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전의 경우 지난 2008년 3월 25.8kV 교류회로에 사용하는 옥내 변전소용 친환경 가스절연 개폐장치(EGIS, Environment-Friendly GIS) 및 고체절연 개폐장치 일반 구매규격을 제정, 같은 해 12월 개정을 통해 규격을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친환경 개폐장치를 적용하기로 한 상태여서 업계의 관심이 많은 분야였다.

한전 측은 일단 내년도 4개소의 신규 변전소를 시작으로 물량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업계의 연구개발 속도가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환경에 대한 세계 시장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어 누가 먼저 한전에 적용하고, 그 실적으로 해외로 나아가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RPS 도입 방안 국회 의결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2001년 10월부터 도입된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11년말까지만 존속하며 2012년부터는 RPS를 시행하게 돼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육성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RPS 도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공급의무자로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포함시켰는데, 한전의 6개 발전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메이아울촌, 현대대산 등 14개 발전회사가 공급의무를 지게 됐다. 업계로서는 발등에 불이 켜진 셈이다.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경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경기 침체로 인해 자금 조달을 어떻게 이끌어 낼지 고민을 떠안게 됐다.